

★사관경찰대기출 -현대소설(김정한)제3병동/수라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종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젯, 매트 애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늑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A]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험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 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쳐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악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향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 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만이, 또닥또닥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꼭 다문 입

은 헤일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뒤틀린다. 다시 뒤틀리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늑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게서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돌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B]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제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환, 「제3병동」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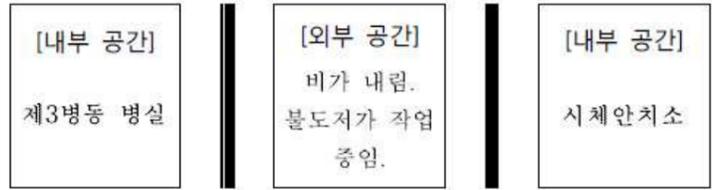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 ② 어머니를 여윈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질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중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3.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1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유리창>

<유리창>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 보기 2 >

- 가회 : [A]의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회 : [B]의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회 :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회 :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① 가회, 나회
- ② 가회, 다회
- ③ 나회, 다회
- ④ 나회, 다회
- ⑤ 다회, 라회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연스럽게 그러한 애기들을 나누던 유생들도, 오봉 선생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자, 상가 가족들 못지않게 비통한 표정들을 하였다. 오봉 선생의 옥중 동지였던 한 선비는 일부러 가야 부인을 찾아와서 흐느끼는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까지 하였다. ㉠ (그는 재판정에서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이다.)

㉡ “오, 효부였더군! 내 까막소에서 오봉으로부터 잘 들었소. 친정이 김해라 했지요? 나는 창원이요. 창원 김 진사라면 다 아요.”

이러고는 다시,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 이 땅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잔디밭가로 돌아갔다. 위엄이 있는 말씨라든가, 자가 넘게 자란 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기백이 대단한 어른같이 보였다. 결국 이 창원 김 진사란 선비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평토제가 끝나고 해반과 아울러 으레 있는 식사와 주찬이 나돌 무렵이었다. 술도 얼마 돌지 않았을 텐데, 별안간 선비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호통 소리가 일어났다.

“이놈, 개 같은 놈!”

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그 창원 김 진사란 늙은 선비였다. 그는 계속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 “오봉은 바로 네 자식이 찍었던 말어! 알겠나, 이 개같은 놈아? 알았음 썩 물러가거라! 뻔뻔스럽게…….”

“이놈이 무슨 소릴 대어놓고 ㉣ (함부로) 하노?”

상대방은 역시 이와모도 참봉이었다. 이와모도도 같이 수염을 떨어 댔다. 얼굴이 넓적해 그런지 꼭 삼살개가 으르대는 것 같았다. ㉤ 아무래도 그는 처음부터 자릴 잘못 잡았던 것이다. 애당초 그런 데 온 것부터가 그렇고…….

그러나 그도 지기는 싫었다. 지다니!

“이놈아, 안 가라 캐도 갈 끼닷! 버릇없는 니놈과 자리를 같이하다니…….”

이와모도 참봉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상주들이 달려가 말리었으나, 이와모도 참봉은 들을 리 만무했다. 그는 화를 머리끝까지 올려 가지고 어기적어기적 산을 내려갔다.

“저런!”

상가측에서 백관 한 사람이 급히 그를 뒤따라갔다.

(중략)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이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며 그들의 ‘제국’이 단박 이길 듯 떠들어 대던 소위 대동아 전쟁이 열린 끝장이 나긴커녕, 해가 갈수록 무슨 공출이다, 보국대다, 징용이다 해서 온갖 영장들만 내려, 식민지 백성들을 도리어 들볶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들 했다.

물강스런 식량 공출을 위시하여 유기 제기의 강제 공출, 송탄유와 조선(造船) 목재 헌납을 위한 각종 부역과 근로 징용은 그래도 좋았다. 조상 때부터 길러 오던 안산 바깥산들의 소나무들까지 마구 찍혀 쓰러진 다음엔 사람 공출이 시작되었다.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 그러한 오봉산 밭치 열두 부락의 가난한 집 처녀 총각과 젊은 사내들은 이마를 히노마루 ㉥ (일본 국기)에 동여매인 채, 울고불고하는 가족들의 손에서 떨어져, 태고나루에서 짐덩이처럼 떼를 지어 짐배에 실렸다. ㉦ (물금까지 나

가면 기차편도 있었지만 차는 위대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만원이었다.) ㉧ 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안내 들은 태고나루에서 눈물을 짓다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가 일쑤였다. “명천 하느님요!” 하고 땅을 치던 그들은 말 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

“시쫄돈을랑 그만두이소! 내가 대신 다 내놓았임데이…….”

㉨ 돌아간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만세통에 총 맞아 죽은 시숙과 딸의 영가를 거기에 모셔 둔 가야 부인은 오면가면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기에 바빴다.

“억울한 말이싸 우째 다 하겠능기요. 나도 이렇게 안 살아 있는 기요.”

흐느끼는 아낙네들의 손을 잡아 주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었다. 먼데서 온 분은 기어이 재워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가야 부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공덕이었다.

- 김정환, 「수라도」 -

4.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작가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반어적 어조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인물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5.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야 부인’은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꿰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김 진사’는 기개와 위엄을 갖춘 깨끗한 선비로 시대와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 ③ ‘이와모도 참봉’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오봉 선생’과 ‘가야 부인’은 유교를 신봉해 유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⑤ ‘오봉 선생’과 ‘김 진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유생으로 함께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아버지와 인연과 가까운 지역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가야 부인'과의 친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 : '오봉 선생'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 : '이와모도 참봉'이 상가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김 진사'와 '이와모도 참봉'의 갈등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④ ㉣ : 가족을 잃은 슬픔을 종교에 의탁해 해소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벗어난 초월의식에 기대는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⑤ ㉣ : 여러 대에 걸쳐 힘든 삶을 이어온 집안의 내력을 설명함으로써 '가야 부인'의 이웃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명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와 ㉢는 방언과 표준어를 병렬하여 독자에게 어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와 ㉣는 낱말과 문장의 내포적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여 독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 ④ ㉠과 ㉣는 인물의 행위나 사건에 관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보충하고 있다.
- ⑤ ㉡와 ㉣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이야기의 심층을 표면화하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수라도」는 일제 말 낙동강 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한 작품이다.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과 친일 협력으로 권세를 얻은 이와모도 집안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일본 경찰로 탈바꿈하여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했다. 특히 일제말 창씨개명과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이, 일제 치하에서는 도경 고등계 경부보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차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① “억울하지! 만약 우리 오봉과 가야 부인 같은 이들만 이 땅에 살았더라면…….”이라는 데서, ‘일본인보다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을 탄압하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음을 알겠군.
- ②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부보 같은 위인들”을 제시한 데서,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권력이 차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이 유지되었던 국가적 모순’의 근거로 삼고자 했음을 알겠군.
- ③ ‘보국대’와 ‘징용’이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한 데서, ‘내선일체에 동조하고 대동아 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이와모도의 큰아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겠군.
- ④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라는 데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의 현실을 증언’하고자 했음을 알겠군.
- ⑤ “그들은 말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리어 떠난 아들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라는 데서, ‘항일 독립운동 내력을 가진 오봉 선생 집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겠군.